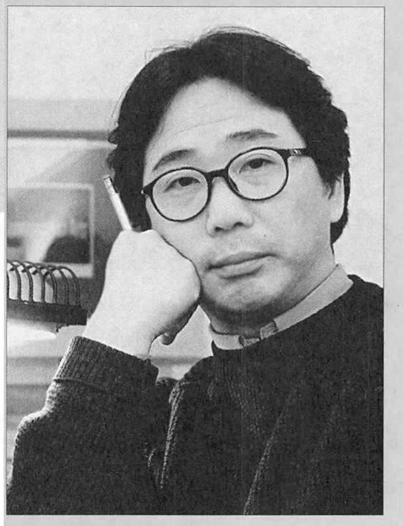
"인간적 정서와 상상력 담아 책의 가치 키우자"

책의 내용과 성격 표현한 디자인 원칙 지켜야

최만수 | 그래픽디자이너 · (주)끄레어소시에이츠 대표


최만수씨

디자인은 시대정신과 감성을 반영하므로 그 시대를 닮게 마련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감성과 기술력이 상호 조화를 이뤄 문화상품으로서 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21세기 편집 디자인의 숙제일 것이다.

굳이 새천년의 이름을 빌지 않더라도, 지금 세상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놀랍게 변모하고 있다. 출판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보와 지식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이미 일부분은 디지털 매체에 넘겨준 터에 종이책의 존재위기에 대한 논란도 심심찮게 일고 있다.

디지털화될수록 인간적인 감성 요청돼

그러나 돌이켜보면, 20세기 내내 다양한 영상매체가 태어나고 발전함에 따라 문자의 매체력이 수시로 위협받으면서도 문자의 고유한 역할은 흔들림 없었듯이, 종이책도 앞으로 다양한 매체와 나란히 건재할 것이며 나아가 다른 매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과 본령이 더 강조되리라고 확신한다.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그에 대한 반동으로 아날로그적 · 인간적 · 감성적인 것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커질 것이며, 또 사람의 지적 · 정서적인 욕구는 디지털 기술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고유한 세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21세기 편집 디자인의 실마리가 있다고 본다. 디지털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되 인간의 지적 활동, 상상력과 정서를 담아내고 촉발시키고 축적하는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기술에만 의지해 자칫 출판의 고유한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소외시키지 않도록, 편집 디자인이 일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은 시대정신과 감성을 반영하고 또 때로는 앞서서 이끌어 나가므로 그 시대를 닮게 마련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감성과 기술력이 상호 조화를 이뤄 문화상품으로서 책의 가치창조를 극대화하는 것이 21세기 편집 디자인의 숙제가 아닐까 싶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간과 과정의 단축, 표현의 용이함과 정교함, 정밀한 인쇄표현 등을 가져와 출판 디자인에 기여한 바가 참으로 크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날마다 버전업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업 수행능력이야 참으로 그 자유자재함이 감탄스럽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다. 많은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그것이 도구임을 잊은 채, 컴퓨터 프로그램의 능력에 디자인의 역량을 의지하다 보니, 디자인이 책의 내용을 압도할 만큼 현란해지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서와 미학적 안배 수반된 디자인 필요

디자인은 책의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따라서 편집 디자인은 책의 내용과 성격을 가장 적절히 드러내기 위해 고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서적인 배려와 미학적인 안배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디자인이 이 같은 기능에 충실할 때 비로소 아름다움도 견지할 수 있다.

이렇게 21세기 벽두에 새삼스레 디자인의 원론을 말하는 것은, 최근 일이십년 사이에 출판에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순기능도 컸지만,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과 출판사의 상업적인 고려가 겹쳐서 알맹이와 따로 움직이는 공허한 디자인이 책의 본질과 품위를 가리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식산업 ·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출판에서 디자인의 이런 거품현상은 정리돼야겠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출판 디자인이 책과 더불어 좀더 창조적으로 발전하려면, 좀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유통구조나 경제성 때문에 책의 크기가 신국판 일색인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책 하나하나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크기가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집 디자인의 핵심요소인 타이포그라피의 경우, 최근 다양한 서체가 개발됐지만, 기본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로마 알파벳에 견줘 한글은 조형미가 퍽 떨어진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명조와 고딕의 가장 기본적인 서체를 아름답고 안정감 있게 조정하고 다듬는 작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